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 참고자료</h1>	2015. 10. 14(수)	
		작 성 문 의	통일안보정책과 박용우 과장 김국현 중령 044-200-2123 / 044-200-2126
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.			

‘일본 자위대 입국 용인되지 않는다’ 는 입장 변함없어

- 황교안 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시 강창일 의원의 일본 안보법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- 황 총리는 ‘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’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, 이러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음